

#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인문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 제시문 (가)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거듭 나무라셔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이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지유.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害鳥)는 으레 참새만 낚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용모는 아무것도 풀릴 게 없다는 투로 원기 있게 말했다. 그것은 슬기운 덕도 아닌 것 같았다. 지은 죄 없이 고개 조이고 살아온 사람이 오랜만에 쳐 보는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었다. 판사가 고개를 갸웃하고 나서 용모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꿩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이겁니까?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에 야생 동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유,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 . . .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物格)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동물-아니 그제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 . . .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하면 말입니다. . . . . 그럴 수는 옳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제시문 (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이론을 통해 해부학적, 행동적, 그리고 사고와 의식, 감정을 포함하는 정신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물들 사이에 진화적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어렵듯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자신과 현격하게 달라 보이는 종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급진적 의견이 아니다. 만일 인간이 특정한 기술 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다른 동물들 역시 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지성과 지각 능력, 감정, 그리고 윤리의식이 어디에서 기원하겠는가? 종들의 서열관계에 관한 개념은 다른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그것은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침팬지가 조이스틱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미로찾기를 하는 것을 본 사람은 “그것 봐, 침팬지가 새보다 영리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새가 침팬지보다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 봐, 새가 침팬지보다 영리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더 영리하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제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특정 종의 개체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종 특유의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실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연속값으로서의 지능을 언급하는 대신, 우리는 광범위한 친족 관계상에서 우리와 가깝거나 비슷하게 생긴 종들이 우리와 관계가 멀거나 덜 비슷하게 생긴 종들보다 더 영리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종(種)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로,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실제로는 인간의 이름으로)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하며 가치 있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들의 고통에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닫아 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편협한 인류애적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존중해달라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그들의 간청에 귀를 닫는 것이다.

## 제시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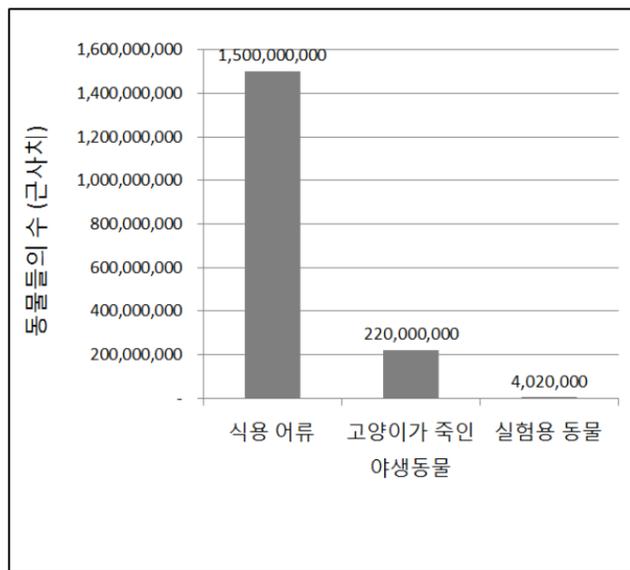
동물들은 자의식적이지 않으며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그 목적은 인간이다. 우리는 “왜 동물들이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류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다. 동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만일 개가 그의 주인에게 오랫동안 충실하게 봉사한다면, 그의 봉사는 인간의 봉사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개가 더 이상 봉사가 어려울 정도로 늙어버리더라도, 그 주인은 개가 죽을 때까지 개와 함께 해야만 한다. 그러한 행동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들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물의 어떤 행동이든 인간 행동과 유사하고 동일한 원리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간에 대한 상응하는 의무를 함양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가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썩 죽인다면, 그의 행동은 비인간적인 것이며 그가 인류에 대해 보여주어야 하는 자신의 인간성에 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구태여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해야만 한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도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평가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관찰 목적으로 아주 작은 곤충을 이용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나뭇잎 위에 다시 되돌려놓았다.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인한 어떠한 해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한 생명체를 파괴한다면 미안한 일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말없는 동물들에 대한 자애로운 감정은 인류에 대한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킨다.

제시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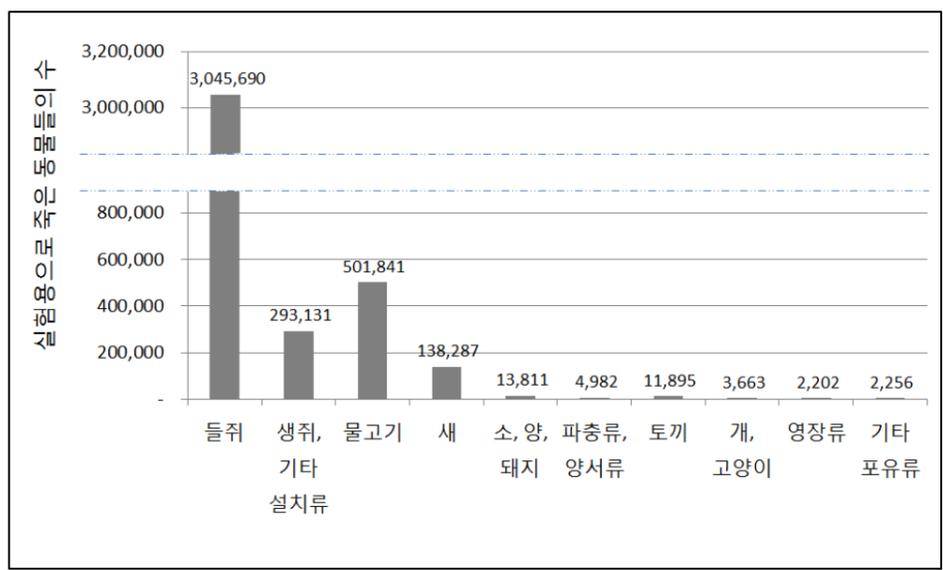
[도표 1]

동물들의 사인(死因) 비교



[도표 2]

실험용으로 죽은 동물들의 종류



[도표 3]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치료법의 활용 정도 (근사치)

인공심장 판막 이식 횟수	4,000건
유방암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수	35,000명
인슐린을 투여받는 새로운 당뇨병 환자의 수	100,000명
전신 혹은 부분 마취 수술 횟수	3,000,000건
천식 치료제 처방 횟수	30,000,000건
항생제 처방 횟수	50,000,000건

※ 2013년 영국의 연간 통계

<문제 1>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